

<2014년 서울시 9급 영어(B형) 총평>**< 총평 >**

서울시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 작년이다. 그 전의 서울시 문제는 길고 난해한 걸로 악명을 떨쳤으나, 작년에 쉽게 출제되어 문제 공개 첫 해의 관행을 지켰다. (문제가 공개되는 첫 해에는 쉽게 내는 경향이 있음)

올해도 작년과 대비하여 길이는 비슷했으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 강하다. 또한 직답이 나오지 않고 애매한 부분도 있고, 또 그간의 서울시와 다르게 생활영어나 영작이 출제되지 않았던 것도 특이하다.

- 어휘 : efface(= erase), emulate(= imitate)는 중급 정도의 난이도이다. 하지만 delve into(= investigate), discourse, construe, expulsion은 쉽게 다가오기 어려웠을 것이다. 보기를 (A)와 (B)로 나누는 문제 형태는 이제 자주 보는 형태가 되었다.
- 문법 : 영작이 안 나온 것이 특이하다. 난이도로는 도치의 기능을 묻는 문제(at certain times may this door be left unlocked)와 prefer A to B의 명사 비교급 병치 문제는 새롭다. 하지만 선행사와의 수 일치(damage)나 가정법의 도치(should milk)는 조금만 조심하면 잡을 수 있는 문제이다.
- 독해 : 가장 문제가 된 파트이다. 짧으면서도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(challenge / to achieve greatness)가 출제되었다. 구성은 빈칸 문제, 주제를 묻는 문제, 순서를 묻는 문제 등이 섞여 있었다.
- 영숙어 : 구동사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디엄은 한 문제가 나왔다. wet behind one's ears(미숙하다)가 그것인데 지방직에서도 출제된 표현이 아닌가?! 다시 돌아 나왔다.

이제 올해의 모든 전반기 9급 시험이 종료되었다. 최선을 다하신 본들의 합격을 기원하며, 내년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 탄탄한 도약대를 올 여름에 만들어내시기 바란다.

< 해설 >

1. 힌트 1) 플렉스 타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형태의 글이다.
 힌트 2) 글을 쓴 목적이므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key word가 선택지에 있으면 답으로 유리하다.
2. 힌트 1) 글의 순서 찾기는 논리나 시간의 순서로 잘 출제함.
 힌트 2) (ㄷ) pen name Mark Twain --> (ㄱ) began --> (ㄹ) mid-career --> (ㄴ) later life (시간의 순서를 담은 키워드를 잘 활용)
3. 힌트) 빈칸 뒤의 wander(돌아다니다) in search of audience(관중을 찾아서) --> 일자리(workplace)가 없으므로(deprive) 벌어진 현상

4. 힌트) 안에서 밖으로 익은 것이 전자레인지의 현상 --> 음식이 다 익기까지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함.
5. 힌트) 오류는 있었지만 우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함. (본문의 erroneous assumption that the universe is static + leading some scientists to conclude that ~ may in exist)
6. 힌트) 본문 중간의 Aurora Leigh is not a traditional Victorian woman - she is well-educated --> Aurora Leigh는 교육받는 사람이고 당시의 전형적인 경우는 아님 --> 당시의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.
7. 힌트) effect의 동사형을 찾는 문제 = cause(초래하다) (effect를 명사로 보면 결과의 뜻이 있으나 동사를 찾아야 하는 문제)
8. 힌트 1) ef(= ex) + face(= side) = e(= ex) + raze(지우다) (접두사 공유의 원칙)
9. delve into = investigate = look into (전치사 into를 통해 의미 역추론 할 수 있는 문제)
10. emulate(모방하다) = imitate(모방하다)
11. wet behind the ears = 귀 뒤가 젖었다 = 미숙하다 = rookie(신참) (박세리가 처음 등장할 때 골프계의 루키였음)
12. will soon be ready for human trial(조만간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함) = 사람에게 실험을 한다는 것 = 긍정적 느낌의 보기가 답 = 4번이 긍정적 느낌의 선택지
13. 삶에는 늘 업앤다운이 있음 = 감정이복은 피할 수 없는 것(inevitability)
14. 도치는 부정부사, only 부사어구, 보어 등이 문두에 올 때 생김 --> at certain times만으로는 도치의 요건 부족
15. 수 일치 문제 : things that (we know) damage임. 즉, 괄호를 묶으면 뒤의 동사가 복수 선행사와 일치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됨.
16. viewing 삭제 --> prefer A to B는 비교급 표현이므로, A(painting)와 B(sculpture)의 구조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. A와 B가 명사로 병치되고 있음.
17. (A) 부정적 단어(circumscribe 제한하다) (B) 긍정적 단어(ignite 불을 붙이다)
18. should에 의한 도치절 = should milk test positive = if milk should test positive
19.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 = 전치사 + 관계대명사(in which) = 관계부사 = 뒤에 완전한 구조를 취함.

20. 애매한 문제임 하지만 to achieve greatness가 정답으로 더 가깝다고 생각함.

* to achieve greatness(위대함 이루기 위해)를 부사적 용법으로 놓고 푼 경우 - 정답이 (3)

근거) it = challenge인 이유는 앞에 challenge란 어휘가 있고, 뒤에 to achieve greatness가 있으므로 다시 반복해서 ⑤의 to achieve greatness는 중복이 되어 어려움.

반론) 매일(everyday)가 도전(challenge)이라는 문맥인데, 그러면 2번의 everyday도 정답인 논리 모순 가능성이 생김.

* to achieve greatness를 진주어로 놓고 푼 경우 - 정답 (5)

근거) 가주어 + 진주어의 구조로 보는 것이 해석도 명료하고 문법적으로 깔끔함.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안에 위대함을 달성하려는 것이 있으므로 매일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라는 논지